

김경준 수사, 신당-한나라 첩보전 치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한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수사 확대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양당 모두 검찰청사와 가까운 서초동에 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하는 등 김씨나 검찰의 '입'에서 각종 발언이나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공식 발표되지 않은 정보의 습득과 해석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당의 모습은 마치 첩보전이나 정보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신당에게는 대선 반전의 유일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상황이 대선으로 가는 마지막 걸림돌이라는 점을 인식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통합민주당=최근 검찰의 김경준 수사에 대비, '이명박 주가조작자 진상규명대책단'이라는 이름으로 상황대응 태스크포스(TF)

앞다퉈 서초동에 대책 캠프 초비상 사태

인력 총동원 TF 구성... 24시간 대응체제

를 꾸렸다. 기획조정, 상황대응, 언론공보 등 4개팀 체제로 운영되며 구성원은 단장인 정봉주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박영선 서혜석 최재성 의원 등 현역의원 6명과 실무인력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한나라당이 '기획 귀국설' 등을 제기하는 가운데 대규모 TF를 꾸려 시급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된다. 'BBK 주가조작 사건'에 정통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정에 부대로 꾸렸다. 대한통합신당 측에서 과도한 대응을 할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 차분하게 정국

짜르는 대응을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대한통합신당은 또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정봉주 정성호 공동단장은 사무실에서 상주하다시피하며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저격수'로 나선 박영선 서혜석 의원이 기획조정, 원내대변인인 최재성 의원이 언론공보, 율사 출신의 우윤근 의원이 법률 지원을 맡았다.

◇한나라당=김경준씨의 국내 송환설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지난달 초부터 일제감치 공

비공식 매머드급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방위 방어전에 나섰다. '홍준표팀', '서초동팀', '송정호팀' 등 3개 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활동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홍준표팀'으로 불리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클린정치위원회'가 BBK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하루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이끌고 있다.

이후의 경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오세경 상근특보, 고승덕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서초동팀'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초동팀에는 전직 언론인 출신 인사들도 포진, 김경준의 진술이나 폭로가 있을 경우 즉각 검찰 기자실을 찾아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대한 수사 협조 인상 풍겨 "단독 범행 아니다" 이끌기

김씨 영장실질심사 포기 왜

읍서넬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올해 대선 정국의 중대변수로 떠오른 김경준씨가 구속영장 청구 1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인 18일 오전 11시께 돌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이미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큼 충분히 수사를 해 놓았고 미국 법원도 "범죄사실이 대체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김씨는 "검찰이 적용한 내 혐의 사실은 억지"라며 다루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김씨가 노리는 것은 '사법적 절차에 협조했다'는 감형 사유와 검찰의 신속한 공판 수사, 즉, 발빠르게 혐의를 시인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향후 재판 등에서 양형 착각 사유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주장을 펴 이번 사건이 김

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

만약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 등에서 '주범'과 '중범'의 관계가 바뀌면 김씨에게도 매우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곧 김씨가 검찰의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이 후보 등이 범행에 관여했다거나 심지어 주도했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런 추정이 맞다면 김씨가 한국 송환 당일 검찰에 갖고 들어갔다는 '자료'도 자신의 죄책을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BBK 등의 실소유주'라거나 '공범이 더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내용일 수도 있다.

김씨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이날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은 검찰이 김씨를 '최종 타깃'으로 여기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김씨 구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려는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연남뉴스



18일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대한통합민주당 국가비전선포식 서울지역 선대위 및 가족행복발대식에서 정봉주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BBK 사건과 이명박 후보의 연관을 주창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중앙)과 박형준 대변인, 고승덕 변호사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BK 김경준 검찰 수사와 관련한 당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남뉴스

선거법 퀴즈 풀고 상품도 타고

광주일보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현상퀴즈를 실시합니다. 선거법 현상퀴즈는 매주 월요일 한번씩 출제되며 두 문제를 모두 맞춘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명에게 고급 진공청소기를 우송해 드립니다.

- 문 1) 다음중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UCC(개인제작 동영상)는?
 - ① 특정후보를 개에 비유한 UCC
 - ② 정책대결을 촉구하는 UCC
 - ③ 모두 기권하지고 주장하는 UCC
 - ④ 특정후보의 거리선거운동 UCC
- 문 2)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부재자 신고기간입니다. 다음중 올바른 신고방법은?
 - ① 인터넷
 - ② 전화
 - ③ 서면 또는 우편
 - ④ 이메일

*응모요령=엽서(종류 무관)에 문1)과 문2)의 정답을 적어(우편번호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 광주일보사 편집국 선거법퀴즈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지나주 정답풀이
 - 문1)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연령은 몇 세 이상입니까?
 - ① 17세 이상
 - ② 18세 이상
 - ③ 19세 이상
 - ④ 20세 이상
 - 문2) 전남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연달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다음중 이번에도 단체장·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장흥
 - ② 해남
 - ③ 장성
 - ④ 보성
- *지나주 퀴즈 당첨자: 최수정 광주시 남구 월산동1018-43

光州日報社 정략남도선거관리위원회

檢, '李 의혹' 수사 '시간과의 싸움'

후보 등록일·김씨 구속 만료일·대선일 '고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검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자신이 공범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될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일단락 짓고 기소해야 하는 동시에 그와 별도로 이 후보의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법적으로도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다 정치적으로도 대선 후보를 수사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속전속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등록일(25~26일)과 김경준씨가 구속될 경우 구속만기일(11월 28일 또는 12월 8일), 대통령 선거일(12월 19일)이 체포·구속 등 강제처분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 후보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선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중범 죄 혐의가 아닌 한 선거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 등록일(25~26일) 이전에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구속 만기가

수사를 일단락짓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때를 즈음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이 후보의 연루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의 연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해 소환을 통보해도 이 후보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연남뉴스

사건 연루 가능성...입국땀 '사법 처리' 우려

김경준 가족 왜 안오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범행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읍서넬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국내에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김씨 가족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실제 김씨의 아버지는 최근 한국 내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들은 한국에 가면 이 후보측과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다른 가족들도 "김씨가 한국에 가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송환된 16일 가족들도 비행기에 동승하거나 다른 비행편으로 한국에 입국해 언론 인터뷰

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과 관련, 우선 김씨 가족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 때문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김씨의 송환 결정은 내린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 가족들이 범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누나 예리자 김은 현지 법원 재판부가 "이번 범행으로 이득을 본 사람 중 한 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 가족들은 차치 입국했다간 수사당국의 '사법처리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귀국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성립된다. /연남뉴스

2008년 대규모 채용

경찰직전문

남·여 경 찰 101경 비 단 경찰기동대 해 양 경 찰

합격! 바로 그 이름 메가경찰학원입니다.

개강 12월 3일(월)

명강사

■ 전국 최강 경찰교수팀

명강의

■ 최상의 합격 강의 시스템 1회 강의로 2회반복 학습효과

합격책임

■ 2개월책임완성

■ 전문컨설턴트의 1:1상담

메가경찰학원 062)226-5050 전남여고 후문 건너편

=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개원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문제풀이 기법! 최고의 직종들을 자랑하는 현대교원임용 교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론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설명회 =
매주 - (화,목)오후 6시 -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찰서 옆
www.hgosi.net 062)222-6790

= 앞으로 세무직 많은 채용 예정!! =

7·9급 공무원

행정+공안+기술직

== 전국 유일의 정통 권위 강사진 총출강!! ==

개강: 1월 15일 주·야(휴일)반 모집(현장접수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시험명: **무등고시학원** 광주동부경찰서 (중요고급 무등반)

www.mdgoal.co.kr ☎ 222-4560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9급 공무원 개강 12월 3일

채용: 행정직, 교육행정, 사무직, 행정직, 관리직, 사법직, 교육직, 생업직, 농업직, 무역직, 관리직, 관공, 보건직, 기술직

공무원 이론반 2개월 완성
(12주/18차 - 매일 2시간)

공무원 문제풀이
(12주/18차 - 매일 2시간)

2008년부터 세무직 대폭확대! **세무직 단목반** (이론반+문제풀이) **기술직 단목반** (이론반+문제풀이)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
전남여고 후문 부근 건너편 ☎ 252-0252